

산천어등을 양식하여 출하하고, 주어종(主魚種)인 송어는 계절과 관계없이 출하하고 있다.

## 2) 천제암(天祭岩)

예로부터 주민들이 풍년(豐年)을 기원하며 모셔온 큰 암반(岩盤)의 성소이다. 매년 11월 1일에는 천제(天祭)를 올리고 있다.

## 3) 한농복구회(韓農復舊會)

한농복구회의 명칭은 “한국농촌복구청년불빛회”로 전국에 10개 지부가 있는데, 울진군에는 한농복구회 본부와 그 산하인 제1지부가 금강송면 왕피2리 병위부락에 있으며 주로 금강송면에서 활동하고 있다. 이 한농복구회는 흙을 사랑하고 퇴폐된 농촌, 소외된 농민들의 복지증진과 천연 농법에 의한 영농을 통해 새농촌, 새가정 가꾸기 운동으로 이상 농촌을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단체로 십계석국총회로 지칭되는 종교집단이다.

# 제11절 전곡리(前谷里)

## 1. 마을의 자연환경

금강송면 소재지(所在地)인 삼근리에서 24km나 떨어져 있고, 그 서쪽에 있는 태백산맥(太白山脈) 준령(峻嶺)의 계곡(溪谷)인 낙동강(洛東江) 상류의 강변(江邊)에 위치한 마을이다. 마을의 서쪽은 봉화군(奉化郡)의 소천면(小川面), 석포면(石浦面)과 경계를 이루고, 동남쪽은 쌍전2리, 광회1리와 접하여 있으며, 북쪽에는 백병산(白柄山)[1,136m], 오미산(梧味山)[1,171m]이 있다. 마을회관은 2004년에 건립되었다.

## 2. 마을의 역사

### 1) 갈마지(渴馬池)

1770년경에 방씨(房氏)가 개척(開拓)하였다 하며, 이 마을이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형국(形局)이라 하여 갈마지(渴馬池)라 불렀다 한다.

### 2) 원곡(元谷)

1656년(효종 7)에 좌승지(左承旨) 남양인(南陽人) 방덕영(房德永)이 마을을 개척(開拓)

하여 그 후 행정구역개편(行政區域改編) 때 자연부락(自然部落)을 합하여 전곡(前谷)으로 개칭(改稱)하였다. 이 마을은 방씨(房氏)의 집성촌(集姓村)으로 지금도 몇 집이 남아있다.

### 3) 전내(前川)

오미산(梧味山)에서 흐르는 냇물을 사이에 두고 마을을 이루고 있다 하여 전내(前川)라 부르게 되었다.

## 3. 가구 분포

총 40세대가 거주하며 온양 방씨(溫陽房氏)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.

## 4. 마을의 특징

### 1) 대추(大棗)마을

원곡(元谷)에서 생산되는 대추(大棗)는 일품(逸品)으로 매년 많은 양(量)이 생산되어 농가소득(農家所得)의 큰 몫을 차지했으나 개량 대추에 밀려 빛을 잃어 가고 있다.

### 2) 배돌(船石)

수찬(修撰) 이공(李公)이 유배시절(流配時節)에 원곡(元谷) 앞 내에서 선유(船遊)하던 곳으로 그때 배를 매어두었던 돌(石)이 지금도 남아있다.

### 3) 승부역(承富驛)

승부역은 울진군에 유일한 철도역이었다. 그러나 이곳은 전곡리(前谷里) 본동과의 사이에 험준한 산악(山岳)이 있고, 도로도 없어 걸어서 다녀야 하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다. 1993년 12월 5일에 봉화군 석포면(石浦面)으로 편입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.

### 4) 정배지[定配地 : 귀양지]

조선시대에 영천인(永川人) 이공[李秀昌公이라고도 함]이라는 수찬(修撰)의 벼슬에 있던 사람이 원곡(元谷)으로 정배(定配)되었다가 돌아갈 때 소유하고 있던 많은 밭을 울진향교(蔚珍鄉校)에 헌납하였다고 한다.